



Center for Future Warfare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연구센터 워킹페이퍼 No.85(발간일: 2021.12.13.)

터키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설인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2012년 반자유주의화 이후, 특히 2016년 군부의 쿠데타 실패 이후 터키가 보여주고 있는 대외정책 및 안보전략의 변화와 전환은 국제질서의 지정학적 구조가 국내정치 및 사회구조와 복합적으로 연동되고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초 자유주의화 이후 터키의 민주화 및 서구화는 냉전기 동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대립이 투영된 결과로서 또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잘 작동하는 체계로서 발전해 왔다. 탈냉전 후 미중 간 갈등구조의 부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구조적 동학 속에서 터키는 중견국 외교를 넘어 지역패권 도전국으로서 부상하려는 새로운 구조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는 과거 구조 속에서 작동하던 국내외적 체계와 모순을 일으키게 되었다.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이란 군사와 관련된 전 분야, 즉 무기체계, 조직, 교리, 인사,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달성하여 전쟁 수행 방식을 변혁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효과성을 달성하게 되는 과정을 일컫는다.¹⁾ 군사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무기체계, 전술과 전략의 도입을 계기로 추동되기도 하나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



로 추진되기도 한다. 군사혁신은 국력의 중요한 기반인 군사력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중대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²⁾

특히 현대와 같은 고도의 산업구조 하에서 군사혁신은 거대한 산업기반 및 과학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만 사실상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체계적 정책수립 없이 달성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의 달성이 또 다시 국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일정 수준의 산업력을 달성한 국가는 군사혁신을 중대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세계화된 국제질서에서 산업구조 역시 국제정치의 권력구조를 반영하고 있는바 군사혁신의 달성은 훨씬 더 복잡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터키의 반자유주의화 과정은 민주화를 기반으로 했던 ‘중견국 외교’에서 ‘지역패권 추구’로 나아가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제적, 지역적 역할의 변화는 대외적으로 미국 및 서방세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의미했으며 따라서 독자적인 안보전략과 대외전략 구상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지역패권 도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군사혁신을 전면으로 내세우게 되었으며 이의 추진을 통해 군사력의 증진 뿐 아니라 방산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목표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터키 모델은 국가가 처한 국제적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군사혁신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채택되며,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기왕에 존재하는 국제적 구조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성패는 어떠한지를 평가해볼 수 있도록 한다. 즉 현대 국제정치에서 군사혁신이 어떠한 맥락에서 추진되며 그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먼저 터키가 중견국 외교에서 지역패권 도전으로 대외전략을 전환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이어서 이와 같은 대외전략 전환의 주요 수단으로서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군사혁신 추진의 모델과 군사혁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터키의 미래전 모델을 분석·제시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터키의 사례를 통해 중견국의 군사혁신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와 군사혁신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이 혁신의 과정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터키의 대외전략 전환: 중견국에서 지역패권 도전국으로

케말리즘(Kemalist Tradition)³⁾ 이후 터키는 기본적으로 세속주의의 틀을 유지해 왔으며 그

1) Eliot, Cohen,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Military Affairs,"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7-3, 2004, pp. 395-407.

2) 설인효, “군사혁신(RMA)의 전파와 미중 군사혁신 경쟁”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제50집, 3호, 2012. p. 144.

3) Kemal Ciftci, “The Kemalist Hegemony in Turkey and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AKP) as an ‘Other,’” *Dans L'Europe en Formation*, No. 367, 2013.



과정에서 터키군(Tuk Silahlı Kuvvetleri, TSK)은 세속주의의 최종적 수호자로 이슬람을 신봉하는 정치지도자의 등장과 신정화가 추진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경우 쿠데타를 통해 세속주의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⁴⁾ 따라서 근대 이후 터키의 군은 소위 ‘세속적 군부(secular military)’라 지칭되어 온 것이다.⁵⁾ 즉 터키 현대사에서 군은 터키가 오랜 전통으로 인해 신정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제도적 보루’로서 기능해 온 것이다.

터키는 냉전기 동안 미국과 서방진영의 편에 서서 나토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세속주의의 유지는 이러한 터키의 서방화,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하여 서방국가들에서 군사교육을 받아 온 군 내 장교집단이 정치, 경제, 사법 등 사회 전 영역을 장악하여 세속주의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⁶⁾

그러나 정치 지도자 개인 및 터키의 대중 여론에서 과거 이슬람 종주국에 대한 향수와 반미 성향도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그 결과 이의 결집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 및 정치의 이슬람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임계점에 접근할 경우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하여 세속주의로 회귀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1. 중견국 터키의 부상과 성과: 2002-2011

중동의 주요 국가는 터키를 포함 사우디,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 7개국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터키는 줄곧 사우디에 이어 2위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⁷⁾ 그 결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핵심국가의 위치를 점유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터키는 탈냉전 이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에 기반한 안정적 군비의 증가로 역내에서 상당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력의 변화는 터키가 점차 미-러시아 대립구도로부터 외교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3년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시 유럽과 미국 사이의 분열은 터키의 외교적 전환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로 작용했다.⁸⁾ 이때부터 터키는 탈(脫)미국, 탈(脫)나토 정책을

4) David Capezza, "Turkey's Military is a Catalyst for Reform: The Military in Politics," *Middle East Quarterly*, Summer 2009; Mateusz Chudziak, "Cardres Decide Everything - Turkey's Reform of Its Military," *OSW COMMENTARY*, Center for Eastern Studies, No. 275 (2018), p. 1. 터키군은 1960년과 1980에 쿠데타를 일으킨바 있으며 1971년과 1997년에는 정부 해산을 요구하여 성사시켰다. 1960년과 1980년 쿠데타의 경우 헌법 개정까지 추진했다. Chudziak, 2018, p. 2.

5) Chudziak, 2018.

6) 터키군은 세속주의 터키 정부와 나토 및 미국 등 서구국가와 협력하는 전체체계의 핵심적 제도였다. 터키군 자체의 규모도 터키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하다. 36만에 이르는 현역과 15만에 이르는 군사경찰, 838만의 예비군 조직은 국가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 터키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크다. Chudziak, 2018, p. 2.

7) 유재광, "기रो에선 중견국: '능력-의지 연계모델'을 통해 본 터키 중견국 외교 부침(浮沈) 연구," 『국제정치논총』 60(1), 2020, p. 124.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반면 미국은 터키의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터키의 간헐적 이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터키는 이라크 침공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반발에 편승하여 미국의 일방주의적 중동정책을 비판하고 외교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 터키는 냉전기부터 이어지고 있던 나토 중심 외교 일변도에서 벗어나 외교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EU 가입을 추진했다.

2001년 이후 경제위기극복과 가파른 경제적 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G20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터키는 강대국과는 독자적인 '중견국 역할론'을 부각시키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대해 나갔다.⁹⁾ 그러한 노력의 연장에서 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의 5개국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의 중심국가로서 개발협력원조(ODA)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외정책의 자율성 확보 과정은 전례 없는 국내정치의 정치적 안정화와 민주주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며 이루어졌다. 2002년 총선에서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이 이끄는 발전과 정의당(AKP: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은 2/3의 절대 과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며 이어서 2007년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 AKP는 이 기간 동안 과감한 민주주의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는 EU 가입을 위한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¹⁰⁾ 즉 터키는 국내 민주화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을 지향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에르도안은 '이슬람 국가 비전 운동(MHG)' 계열을 대표하는 터키 정치인이었다. AKP의 안정적인 지배 하에서 에르도안은 무슬림 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시현했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후 선거에서도 승리의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즉 종교적 온건주의와 각종 개혁적인 민주화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결합했으며 눈부신 경제적 성과로 대중적 지지를 강화해 나갔다. 에르도안은 유능한 행정가로 그가 이룩한 경제적, 행정적 성과가 AKP의 정치적 선전의 근간으로 작용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화 과정의 또 다른 측면은 군부의 영향력 약화였다. 에르도안은 이슬람주의 비전에 효과적으로 호소하고 민주화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정교분리', '민족주의' 성향을 대표하는 '케말리스트 군부 세력'을 정치적 대척점에 두고 점진적인 숙청을 진행해 나갔다. 관료사회와 사법부 요직에 포진해 있는 세속주의 정치세력들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상술한바와 같이 에르도안의 민주화 및 정치적 안정화는 대외적으로 지역 내에서 '중견국으로서 터키의 리더십 부각'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시에 패권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라는

8) 유재광, 2020, p. 125.

9) Önis, Ziya and Mustafa Kutlay. "The Dynamics of Emerging Middle Power Influence in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 the Paradoxical Case of Turke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1-2 (2016), p. 9.

10) Ihsan Yilmiz & Galib Bashirov, "The AKP after 15 Years: Emergence of Erdoganism in Turkey," *Third World Quarterly* 39-9 (2018), p. 1816.



측면에서는 외교적 자율성 확보, 나아가 반미주의로 연결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특히 중동, 아프리카에서 어느 한 편의 이익에 기울지 않는 ‘중재자 외교’의 형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중재를 통해 갈등보다는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즉 터키는 과거 냉전기 ‘미국의 하수인’으로서 ‘냉전의 전사(The Cold War Warrior)’ 이미지를 벗고 ‘자비로운 역내 강대국’으로 자국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2009년부터 터키가 추진한 ‘무역 국가’ 역시 과거 숙적관계였던 그리스와 사이프러스(Cyprus)와의 화해를 추구한 것으로 이러한 대외정책 행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 반자유주의 전환: 에르도안 술탄리더십의 등장

2011년 AKP는 다시 한 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다. 그러나 2012년부터 터키는 반자유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2년, 2007년에 이어 2011년에도 현직의 이점, 경제적 성과에 기반한 대중주의의 성공적 활용으로 에르도안의 AKP는 47%를 득표하여 야당인 CHP의 20%를 압도했고 그 결과 전체 550석 중 2/3에 가까운 327석을 확보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압승과 야당의 몰락은 에르도안과 AKP는 개인의 권위주의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터키 의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사회경제적 제도, 미디어에 대한 장악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아젠다 자체를 독점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상당부분 터키 민주주의가 약한 시민사회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¹¹⁾

이후 에르도안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행정권을 활용하여 권력의 확대 및 사유화를 추진해 나갔다. 2013년 5월 발생한 ‘게치공원(Gezi Park) 사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의 일단이다.¹²⁾ 이 사태에서 시민 8000여명이 부상을 입고 5명이 사망했다.

에르도안 정권 내에서 견제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또 다른 사건은 잦은 부패 스캔들이었다. 그러나 에르도안과 AKP는 이러한 사건들을 오히려 정적 제거의 기회로 활용하는 정치적 수완과 여론 장악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친이스라엘 또는 친미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정적들을 더욱 밀어붙였다. 정치적 작악 후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 전개는 에르도안과 AKP가 이미 정치적 아젠다를 독점하는 환경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군부가 시도한 쿠데타의 실패는 터키 반자유주의화 경향이 노골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 사건으로 군 장교단의 1/3이 숙청되는 등 대대적인 군부 약화의 과정이 진행되었다.¹³⁾ 또한 문민통제가 제도적·비제도적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민간 정부가 군을 통제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에르도안 정부는 그와 AKP를 지지하는 장교단을 꾸

11) 유재광, 2020, p. 136.

12) 유재광, 2020, p. 134.

13) 이 사건 당시 124명의 장성 및 체독이 군복을 벗었고 4만 명 이상의 장교단이 파면 당했으며 8천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Chudziak, 2018, p. 3.



준히 향상하면서 이들과 기존 집단 사이의 대립관계를 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¹⁴⁾ 쿠데타 실패 후 터키군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은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계속되는 지역 분쟁으로 군의 영향력을 필요 충분할 정도로 저하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터키 현대사에서 군은 세속주의를 지탱하고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동시에 이들은 냉전 하에서 형성된 미국 및 나토와 터키의 동맹관계에 기반이 되었다. 세속적 민주주의의 유지 뿐 아니라 사회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서구 교육을 받은 준장교단은 소련에 대한 동맹 유지의 중요한 결속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에르도안은 2007년 개헌의 결과로 2014년 8월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터키는 여전히 내각제였으나 총리 3연임을 금지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에 당선 후 내각제의 상징적 대통령이 아닌 실권형 대통령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었다. 2017년 국민투표에서 51%의 득표율로 개헌에 성공했다.

3. 대외전략의 전환: 중견국 외교에서 지역 패권국 추구로

이와 같은 터키의 반자유주의화는 대외적으로는 ‘중견국 외교의 종언’과 ‘공격적, 팽창적 대외정책 추구’로 나타나게 된다. 터키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견국 외교에서 이탈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대외행보를 보이게 된다. 즉 패권국의 전횡을 막기 위해 중견국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분쟁에 대해 정직한 중재로 명성을 쌓으면서 역내에서 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던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먼저 터키는 시리아 내전, 이집트 문제 등에서 직접적 개입은 배제하는 정직한 중재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개입과 영향력 행사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둘째, 터키는 미국 및 NATO 국가들과 갈등과 반목을 노골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공세적 편승’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 약화시키고 역내에서의 독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본격화 했다.

러시아산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시도 뿐 아니라 시리아 북서쪽 지역에서 쿠르드 반군과 ISIS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이나, 미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을 지원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중국 주도 ‘상하이 협력기구’ 내의 BRICS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국내정치, 대외정책적 행보는 터키의 이슬람 정체성 강화와 동반되어 진행되었다. 에르도안은 유럽 내 이슬람 커뮤니티에 대해 무슬림 정체성을 지키고 서구의 가치체계를 포기할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면서 서유럽은 이슬람 혐오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¹⁵⁾ 에르도안은

¹⁴⁾ Chudziak, 2018, pp. 3-4. 뿐만 아니라 군의 잠재적 반발을 막기 위해 군의 쿠데타 방지를 위한 시민 민병대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Chudziak, 2018, p. 7. 터키 정부가 러시아산 S-400을 도입한 것은 외부의 적을 막기보다는 터키 공군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Chudziak, 2018, p. 5.



또 이와 같은 활동을 반서방, 반미정서의 고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터키의 대외정책 변화는 ‘공세적 군사독트린’으로 나아가고 있다. 터키는 주변국에 대한 단순 외교적 개입을 넘어 터키 영토 밖에서 군사력을 공세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에르도안 독트린’으로 명명되기도 한 이러한 접근법은 외부의 위협에 대해 ‘선제적 군사력 사용’을 내세우며 NATO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정책기조이기도 하다.¹⁶⁾

이러한 기초 하에 카타르와 소말리아에 군사기지를 건설했으며 수단과 지부티에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¹⁷⁾ 이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라이벌 국가들에 대한 견제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즉 터키는 더 이상 지역 내에서 패권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확대된 역할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터키의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는 압축적인 ‘전략 개념’이 ‘푸른 해양 영토(Mavi Vatan, Blue Homeland)’ (전략)개념이다.¹⁸⁾ 터키 해군의 영향력 있는 제독이 처음 사용한 이 개념은 터키의 (군사)전략적 목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푸른 해양 영토’란 ‘동지중해 상의 배타적 경제수역’ 역시 터키의 영토만큼 중요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이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강한 군사력(해군력) 건설을 촉구하는 대외전략 개념이자 안보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실제로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터키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그리스, 사이프러스와 영유권 경쟁을 벌여 온 지역이기도 하다. ‘푸른 해양 영토’는 먼저 터키가 기존의 나토 구성원 중 하나이거나 역내 중견국을 넘어 역내 패권적 지위로 나가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전략의 추구는 NATO의 또 다른 구성국이자 서방국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해 터키의 전략적 이익을 차단해 온 그리스와의 대립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터키의 전략적 이익이 미국 등 기존 지배세력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됨을, 이들을 상쇄시킬 대등한 힘으로써 또 다른 지역 강대국인 러시아의 활용 또는 편승이 필요함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 내에서는 이와 같이 터키의 국익, 전략적 이익 추구를 방해하는 국제적 구조를 ‘아틀란틱 프레임워크(Atlantic Framework)’이라 지적하는 관념적 기반이 존재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반 세속주의 정치세력에게는 오랜 숙원이었다.¹⁹⁾ 전략적 기회가 도래했을 때 이 개념은 정치적 세력화의 구심점으로 작용해 왔다.

15) 유재광, 2020, p. 143.

16) Can Kasapoglu, "The Turkish Navy in Context: Military Modernization and Geopolitical Transformation," *Expert Brief Regional Politics*, AL SHARG Strategic Research, 2020.

17) 임국경, “‘오스만 제국 부활’ 노리는 터키… 해외 영향력 확대 본격화,” 『세계일보』 2020. 2. 15.

18) Ryan Gingeras, "Blue Homeland: The Heated Politics Behind Turkey's New Maritime Strategy,"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2020

19) Gingeras, 2020.



이는 또한 터키의 지정학적 잠재력에 대한 인식 및 야심과도 맞닿아 있다. 터키의 부상은 잠재적으로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맹주로서 터키의 부상을 시사하기도 한다. 터키는 역사적으로 술탄의 국가로서 이슬람 국가들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왔다. 터키가 다시 부상하여 이들의 세력을 규합할 경우 중동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며 터키는 진정한 의미에서 역내 패권의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4. 대외전략 전환의 메커니즘 분석

터키의 대외정책 전환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터키의 부상과 함께 미중 대립구도의 부상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유럽에서 러시아 영향력의 상대적 확대 등의 변화 과정에서 초래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지역)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경제력·군사력 등 국력 신장에 따른 터키의 위상 강화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미국은 인태지역에 집중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그 결과 터키는 자국의 위상 강화를 바탕으로 러시아로의 편승을 적절히 활용하며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고 이는 나아가 역내 패권적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터키의 대외전략 전환이 미국의 대외정책이 자유주의적 리더십 전략으로 변화되었던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주로 터키의 국내정치 반자유주의화 결과라는 반론이 존재하기도 한다.²⁰⁾ 더불어 세속주의, 서양화, 미국의 지배에 반감을 지속하고 있던 터키 시민사회의 무슬림 정서, 이슬람 국가 정체성,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비전 등의 ‘관념적 요인’의 지속적 영향 등도 시민사회 형성, 에르도안 장기 집권의 허용, 터키의 부상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에르도안의 정치적 커리어를 살펴볼 때 그의 뛰어난 행정력과 정치적 수완 역시 오늘날 터키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 중 가장 지배적인 요인을 식별하는 것보다는 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일정 방향으로 순환적 상승작용을 하는 과정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 즉 미국의 대외적 압력이 강화되던 시점이 아닌 포용적 대외정책을 추진하던 시점에 이루어졌던 현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설명력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이다.



Ⅲ. 국가전략으로서의 군사혁신: 자주 방산 육성을 통한 자율성 추구

1. 미국, NATO의 제약 요인 극복으로서의 자주적 방산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여건 하에서 터키는 새로운 대외전략을 추구하고 이는 터키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전략 결정구조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상술한바 터키 내에서 이를 ‘아틀란틱 프레임워크’라 지칭해 왔다. 나토의 일원으로서 세속적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국가안보의 기초로 삼는 정책적 지향성과 체제를 말한다. 이는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군 장교집단과 사회 곳곳에 포진한 예비역 집단에 의해 제도, 비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체제였다.

‘아틀란틱 프레임워크’으로부터 벗어나 터키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방국가, 특히 미국으로부터 자율적인 군사력 건설이 요구되었다. 미국에 의해 제공 또는 판매되는 무기체계가 터키 군사력의 근간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향후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첨단 전력의 독자적 구비는 터키가 꿈꾸는 역내 위상을 확보하는데 대체할 수 없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인식되었다. 방위산업 육성은 에르도안 정부의 오랜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터키는 세계14대 방산 수출국으로 전세계 방산 거래량의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²¹⁾

터키의 방산 건설 노력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바 있다. 1974년 ‘사이프러스(Cyprus) 위기’ 시 미국은 나토 동맹국이었던 터키에 방산 수입 금지조치를 부과했다. 당시까지 거의 전적으로 미국과 나토, 즉 서방국가에 무기와 군수품을 의존하고 있던 터키는 큰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터키에 있어서 자생적 방위산업 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터키는 방위산업을 수립하고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목표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이 ‘아틀란틱 프레임워크’ 형성의 핵심적인 계기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략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영토적 일체성 수호 • 장기적 해양 이익 수호 • 국가의 국제적 위상 증진 및 레버리지 확보 •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추구 • 강력한 자주국방 산업 육성

²¹⁾ Ali Bakeer, *Challenges Threaten the Rise of Turkey's Defense Industry*, Middle East Institute,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적의 억제 및 격퇴 • 정보 우세의 확보/유지 • 작전적 우세 확보/유지
핵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준비태세 유지[작전 전투태세, 구조적 태세(structural readiness)] • 선제적 태세(Pre-emptive status)[테러 방지 및 지역 분쟁 억제를 위한 선제 개입 태세 유지] • 억제
작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연합 작전 이행, 파트너 국가의 역량 증진 •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작전 수행 역량 강화, 공중 우세 확보 및 유지 •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작전 수행 역량 강화, 잠재적 접근 거부
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부대 여단 상시 배치 • 드론의 창조적 활용 • 공수(airlift) 역량 활용 • 해상 수송(sealift) 역량 활용
방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대규모 투입 • 방위산업의 자립기반/지속성 증진 • 양과 질 사이의 균형 추구 • 방위 산업 난관 극복을 위한 해외파트너 모색 • 방산 수출을 통한 영향력 증진

[표1] 터키 국방/군사전략 체계²²⁾

[표1]은 터키가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 대전력과 안보 목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 및 군사전략적 목표 하에서 '자주적 방위산업 육성'이 갖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은 더 이상 미국 및 서방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군사력의 건설을 요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전 분야에 대한 개척을 통해 한층 증진된 국가적 역량과 국제적 영향력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 국방력 구축을 통한 군사혁신은 터키의 대외전략 전환에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인식된다.

²²⁾ Murat, 2020, p. 99.



2. 군사혁신 거버넌스: 자립 방산육성의 제도적 메커니즘과 그 성과

1970년대부터 시작된 터키의 방위산업 건설 노력은 1980년대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방위산업체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 1985년에 방위산업분야 조정을 전담하기 위해 '방산 차관제(SSN)'를 신설하게 되었던 것이다.²³⁾ 즉 방산만을 전담하는 국방 차관직을 신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방산차관의 임무는 터키 방위산업과 함께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군사력을 대체하는데 머물지 않고 방산분야 개척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자원의 제약과 많은 난관 속에서 방산차관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²⁴⁾ 처음 설립 후 지난 30여 년간 터키 방위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주도하는 제도적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현격한 발전이 이룩된 것은 정부의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진 2000년 이후 20년간이었다. 에르도안 정권이 도약했던 2001년 이후 10여년 간 터키 정부는 터키의 자주와 방위산업 수출 장려를 강력히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²⁵⁾ 터키의 방위산업은 2000을 기점으로 주로 해외 수입 부품에 의존했던 조립공정에서 독자적인 디자인과 기술에 기반한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²⁶⁾

터키 방산회장에 따르면 터키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 규모는 2006년 18억 5천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²⁷⁾ 즉 10년간 3배로 증대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은 487만 달러에서 16억 7천만 달러로 확대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터키 방위산업의 발전이 순탄한 과정만을 거쳐 온 것은 아니었다.²⁸⁾ 2014년 이후 3년간 수출은 16억 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순탄했던 양적 팽창의 과정이 질적 팽창과 그 너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내외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체구간 속에서 방위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2017년 정부는 새로이 다수의 산업체를 대통령 지속의 '방위차관'이나 '터키군기금(RSKGV)'의 통제 하에 두는 조치를 취했다.²⁹⁾ 이 기구들은 국가 방위산업 및 무기체계 구매 등을 전담하는 부서들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발표했다.

²³⁾ Ismail Demir, "Transformation of the Turkish Defense Industry: The Story and Rationale of the Great Rise," *Insight Turkey*, Vol 22. No. 3, 2020. p. 19.

²⁴⁾ Bakeer, 2019.

²⁵⁾ Bakeer, 2019.

²⁶⁾ Demir, 2020. p. 17.

²⁷⁾ Bakeer, 2019.

²⁸⁾ Demir, 2020. p. 27.

²⁹⁾ Demir, 2020. p. 23.



정부는 이와 함께 무기 등 방산물자의 해외 판매를 위한 시장개척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이러한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는 ‘떠오르는 방위생산 수출국’ 중 하나로서 선정되며 성공적으로 20억 달러의 벽을 넘어서게 되었다.³⁰⁾ 2018년 한 해 동안 방위산업 및 항공 산업 수출은 터키의 전체 수출 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부문이 되었다. 즉 터키의 대외수출을 주도한 분야가 되어 경제성장의 추진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9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2019년 1월에는 수출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4%의 성장이 있었다.³¹⁾

3. 구조적 제약과 극복 노력

터키 정부는 2053년까지 터키 방위산업을 100% 자립시키며 수출역량을 50억 달러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³²⁾ 적어도 10개의 터키 방산 기업이 세계 100대 방위산업 기업에 들게 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터키는 자주국방과 안보전략 수립의 근간을 마련하면서 국력 성장의 기반이 될 경제적 파급효과도 거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방위산업 자체가 제한된 수량을 일반 산업계와 호환되지 않는 방식으로 산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초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선진국 중심의 기술통제로 인해 기술 자체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공학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더구나 한 국가의 군사안보를 의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산출을 위해서는 실패를 감수하는 초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SIPRI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³³⁾ 특히 ‘최근 사례는 작은 규모 기업들에 의한 수출은 심각한 부침을 겪는 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며 그 사례로 스웨덴과 브라질을 들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일정한 양적 성장과 분야 확대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선진 방산국가와의 궁극적인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터키 역시 이미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먼저 두뇌 유출 문제이다. 즉 많은 터키의 고급 인력이 더 좋은 여건으로 찾아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 터키 내에서는 충분한 급료와 더 높은 직위 및 기업으로의 진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실력을 입증하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더 좋은 여건을 제안받았을 때 터키는 이들을 잡아둘 충분한 재원도 여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충분한 투자를 위한 재원 자체의 부족은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이다. 한 국가가 성장 과정에서 자국 자체의 자본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자본 유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30) Bakeer, 2019.

31) Bakeer, 2019.

32) Bakeer, 2019.

33) Bakeer, 2019.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의 특성상 외국자본의 유치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아틀란틱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미국, 유럽, 협력 관계에 있으나 잠재적 적대관계에 놓여 있기도 한 러시아, 중국 등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터키보다 강한 국가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안보전략의 종속과 제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 비교적 안보 및 군사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카타르와 투자협정을 맺는 것이었다. 작고 부유한 나라이며 지리적 거리 및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터키에게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나라로부터 투자를 받아 터키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최종산물을 수출함으로써 카타르의 국방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상생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나라 사이의 사실상 동맹과도 같은 관계를 형성하여 안보 및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국가전략에 도움이 된다.

한편 오랜 기간 국가운영을 통해 만연한 부패와 경직성을 척결하기 위한 민영화 노력도 병행되었다. 2018년 12월 에르도안은 ‘481 칙령(Decree)’을 발표하여 ‘Tank and Pallet Factory’의 민영화를 위한 길을 열었다.³⁴⁾ 이로써 그는 이 기업이 향후 25년 간 민간에 의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터키는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빠른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지원하되 간섭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국가의 개입정책을 전환하여 기업의 자생력과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터키의 노력이 성공할지 여부는 2021년 현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터키가 앞으로 카타르 이외의 자본투자 및 방산 수출처를 개척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2018년 터키의 5대 수출국은 미국, 독일, 오만, 카타르, 네덜란드였다. 2019년에는 과테말라와 가이아나(Guyana), 탄자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을 새롭게 개척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우디, 이라크, 이집트 등의 주요 수입국과는 거래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터키가 다양한 지역 분쟁에 연루되어 이러한 수출시장 개척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가들은 터키 정부의 안보, 국방정책과 터키 방산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 경제적 이익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 결과 분쟁에 연관관계에 따라 구매 계약을 파기하고 철회한 바 있다.

2017년 걸프 위기 발생 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터키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이는 터키와 카타르 사이의 국방 협력관계 때문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카타르와 직접적 또는 잠재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

F-35 프로그램에 대한 터키의 참여 역시 위협받고 있다. 러시아가 개발한 S-400 구매로 인해 터키와 미국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미국은 F-35 개발 과정의 일정 부품 생산에 터키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터키가 S-400 구입을 결정함에 따라 F-35 개발 참여 및 구입 결정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터키가 S-400과 함께 F-35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스텔스와 관련된 탐

³⁴⁾ Bakeer, 2019.



지 기술이 러시아측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³⁵⁾

문제는 이로 인해 F-35와 관련된 12억 달러 어치의 부품 공급을 맡았던 터키의 방산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시 파키스탄과 기존에 체결된 15억 달러 상당의 2018년 계약과 같은 거대 계약조차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애초의 목표였던 탈 서구화, 아틀란틱 프레임워크의 극복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인 자주적 방산확립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틀란틱 프레임워크의 작용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국가의 대내외 정책결정에 작용할 뿐 아니라 국력의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터키가 앞으로 이러한 두뇌유출, 투자유치, 지역 분쟁에의 연루(대외정책 문제) 문제, 강대국 중심의 국제안보구조 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터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나 그 성공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2010년대 후반의 상황 전개를 분석해 볼 때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지난한 것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터키가 마주하고 있는 장애요인들은 위의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는바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IV. 군사혁신 모델과 미래전 구상

터키의 대외정책 전환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사혁신의 추진이다. 군사혁신이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력의 구성과 운영, 전쟁 수행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군사효과성, 전투 효과성을 극적으로 상승시키는 군 개혁과정을 일컫는다. 군사혁신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병력이나 무기체계 증대로 인한 군사력 증대를 크게 상회하는 전투효과성의 상승이 발생한다. 역사상 다양한 계기에 군사혁신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가들, 특히 강대국들은 군사혁신에 주목하고 이를 추구한다.

군사혁신은 중진국에게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진국은 강대국에 비해 정책 선택에 따르는 제약이 크다. 강대국에 의해 형성된 각종 제도적, 비제도적 제약 속에서 안보 정책을 추진 해 나가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제한된다. 따라서 군사혁신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택지가 된다. 단지 기존의 군사력 운영방식을 유지하면서 양적 증대를 통한 군사력 증대, 국력 증대만을 추구한다면 증대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한된 여건 뿐 아니라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의 압박 속에서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군사혁신은 중요한 해법을 제시해준다. 군사혁신을 통해 상대적으로 작은 투입으로 큰 성과를 산출할 수 있다면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5) "미, 터키에 'F-35' 판매 중단," *Voice of America*, 2019. 7. 17.



군사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성취할 수 있다면 강대국에 의해 부여되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용한 정책자원을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군사혁신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다. 특히 생산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산업혁명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군사혁신의 촉발되어 온 바 있다. 생산방식과 삶의 방식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변화는 전쟁 수행 방식, 즉 파괴의 방식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군사혁신의 시대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 두 국가의 군사혁신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향후의 군사질서는 새로운 군사표준의 등장과 이를 개척하거나 빠르게 흡수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못하는 국가들 사이의 큰 격차 발생으로 인해 격심한 변화를 겪게 될 이다.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군사혁신은 거대한 산업기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도래하는 신기술은 상당한 규모의 산업을 그 기반으로 획득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군사기술의 발전은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무역수지 뿐 아니라 국가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첨단 군사기술의 일반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터키는 군사혁신을 변화된 대외전략 구현의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존의 지역 국제체제에서 자국에게 부과되고 강제되었던 역할을 넘어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할 정책적 과제인 동시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과거의 경험에서와 같이 무기체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한 의존은 아틀란틱 프레임워크를 극복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 제약이었다. 이러한 제약은 터키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대외군사 개입이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 확보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터키는 자주적 방위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대외전략 추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나토의 일원으로서 연합작전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보다 확장된 지역 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동시에 첨단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미래전 수행을 위한 군사혁신 추진의 발판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터키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안보전략 목표는 지역 분쟁의 사전적 억제력 확보와 함께 해양에서의 영유권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력과 군사역량의 구비이다. 나아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양산으로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변모해 오는 과정을 거쳤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 특히 2010년대 중반까지 중동 민주화의 모범 국가로서 터키는 방위산업의 성장을 시장질서의 자율성에 맡기되 국가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동 기간 동안 지속된 경제성장 역시 이러한 정책적 입장의 성공에 기



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이 기간 동안 터키는 산업의 발전 및 자유로운 교역 질서 속에서 방위산업 분야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되 점차 터키 국방을 자주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주로 지원체계, 제도적 기반 제공 등의 방안을 통해 유도해 왔던 것이다.

2014년 이후 터키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³⁶⁾ 에르도안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터키 방위산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조하고 디자인 단계부터 첨단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첨단 무기체계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환로 개척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이와 같은 정책은 2016년의 쿠데타 사건 이후 달라진 정치 리더십과 군 내 엘리트 집단의 성격 변화로 인해 더욱 강화, 가속화되었다.

터키의 자생적 방위산업, 특히 에르도안 정부 이후 이룩된 성과는 일차적으로 터키의 군사력, 그 중에서도 해군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³⁷⁾ 즉 ‘푸른 해양 영토’ 개념 구현을 위한 수단의 구축에 일차적으로 투입된 것이다. 오늘날 터키 해군은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국가들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전력과 높은 준비태세를 갖춘 군으로 평가된다.³⁸⁾ 이와 같은 터키 해군의 태세는 ‘푸른 해양 영토’라는 이름의 해군 훈련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터키의 해군전략에 투영된 대외전략적 전환의 결과는 ‘연안 억제’에서 ‘대양 투사 전력 (blue-water power projecting force)’으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전략적 변화를 경제 발전과 국가의 지원 하에서 발달해 온 자주 방위산업이 뒷받침 해 온 것이다. 터키 해군은 현재 16척의 소형 구축함(frigates)과 4척의 소형 호위함(MILGEM corvette), 12척의 공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³⁹⁾ 2020년대 동안 6척의 잠수함이 추가로 건조되는 등 이러한 전력은 지속 보강될 예정이다.⁴⁰⁾ 또 터키는 경함모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에르도안 정부 하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온 방위산업은 현대의 첨단 해군 무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생산된 소형 호위함(MILGEM corvette)의 경우 최첨단의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Reis Class 잠수함의 경우 공기 주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터빈을 갖추고 있어 터키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터키 해군의 현 전력은 50개 이상의 터키 기업이 70% 가량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수준이다.⁴¹⁾

터키가 자체 개발한 Atmaca 대함 순항미사일도 터키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잘 보여주며 터키의 국방·군사역량을 가늠케 하는 사례이다. 이 전력은 터키 해군의 다양한 함정 뿐 아니라 연안 지역에도 배치될 예정이다.⁴²⁾ 250km의 작전반경을 갖는 이 미사일은 첨단의 유도 시스템을

36) Demir, 2020. p. 30.

37) Hullusi Akar, "Turkey's Military and Defense Policies," Insight Turkey, Vol. 20. No. 3. 2020, p. 11.

38) 터키는 지중해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상적국들에 대해 명확한 수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Kasapoglu, 2020.

39) Kasapoglu, 2020.

40) 안영, “터키, 獨 설계 잠수함 도입해 ‘지중해 양축’ 그리스 견제한다,” 『조선일보』, 2021 7. 17.

41) Kasapoglu, 2020.

42) Kasapoglu, 2020.



갖추고 있어서 신뢰할만한 원거리 전력을 구성한다.

자주적 방위산업 구축을 통한 터키의 군사혁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는 터키 해군의 드론 전력 발전이다. 터키는 첨단 방위산업 기술을 발판으로 드론 등 미래전 전력 발전으로 나가 고자 한다. 터키는 드론의 활용을 터키 해군력 발전의 승수효과를 가져올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드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을 기준으로 터키 해군은 이미 최소 4개의 'ANKA 무인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⁴³⁾ 이 드론들은 고성능의 SAR 레이더와 역SAR(ISAR) 레이더를 갖추고 있으며 적외선 촬영도 가능 해 높은 수준의 전장 상황 인식 능력, 목표 정보 획득 능력을 제공한다. 이들 레이더는 수백 마일 내의 함정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터키 해군은 또한 공격 능력을 갖춘 TB-2s 무인기도 운영하고 있다. ANKA와 TB-2s가 하나의 무인 편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인 체계는 수상 뿐 아니라 무인 잠수정 형태의 운영을 통해 잠수함에 대한 탐지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터키의 방위산업은 이와 같이 새로운 첨단 무기 분야 개척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방 산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⁴⁴⁾ 이는 첨단 과학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 가적 투자 뿐 아니라 새로운 전술과 작전개념에 대한 연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 이를 통해 방산수출을 통해 군사력 건설의 새로운 환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터키의 군사력 자 체를 증강하는 선순환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터키의 구체적인 미래전 작전개념을 추론하기는 어렵 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중경쟁 속에서 태동하고 있는 미래전 개념 역시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터키 역시 미래전 수행 개념을 확정하기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주요 무기체계 분야를 개척하면서 새로운 전략개념을 모색해 나갈 것 으로 보인다. 상술한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전은 거대한 산업기반과 기술수준으로 요구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터키는 이를 국가 산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자생력 있고 해외 수 출이 가능한 방위산업 기반의 구축을 통해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터키의 노력은 세계 군사시장의 변화의 추위 속에서 최첨단의 신 무기체계를 개척하고 선점해 나가는 노력인 동시에 자국 안보 증진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스스로 생산하는 노력의 합치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V. 결론

터키의 사례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로 국가안보전략 및 대외전략의 변환을 추구하는 중견

43) Kasapoglu, 2020.

44) Akar, 2020, 궤. 11.



국에게 군사혁신은 어떠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터키는 근대화 이후 냉전기를 경험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세속적 민주주의 체제, 대외적으로는 나토의 일원으로서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 가까운 국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2000년대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 하에서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견국의 위상을 확보했고 민주화를 심화시키면서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저항하고 주변국의 분쟁을 중재하는 중견국 모델을 건설하게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터키는 에르도안의 장기집권 하에서 점차 대내외적 변환 과정을 겪게 된다. 에르도안이 이끄는 AKP의 선거 압승이 지속되면서 민주화는 퇴색되고 권위주의화의 길을 걷는다. 대내적 민주화 및 친미, 친서방적 대외정책의 내적 기반이었던 장교단 및 예비역 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지배는 점차 약화되었고 2016년의 실패한 쿠데타를 기점으로 퇴색한다. 대외전략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서방 진영 국가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터키의 국경 안전을 위해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중해에서의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한 대양해군 건설에도 매진했다.

이와 같은 터키의 대외전략 전환은 우선 대외적 자율성을 요구했고 이는 국방력 건설을 서방, 특히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필요로 했다. 터키의 방위산업 진흥과 자주국방 노력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바 있으나 200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특히 에르도안 정부 하에서 국가적 정책으로, 대외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되었다.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첨단 무기체계 생산은 터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산 수출로 이어져 규모의 경제로 인한 생산비 감축까지 가능해질 경우 국가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같은 국방 예산 하에서) 군사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전 분야에서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경우 그것이 가져다 줄 추가적인 군사력 강화의 효과는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볼 때 실로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사혁신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특히 터키의 사례는 중견국의 군사혁신이 맞이하게 되는 구조적 도전들을 잘 보여준다. 현대의 군 규모와 무기체계의 첨단성을 고려할 때 방위산업의 발전은 거대한 자본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방위산업의 속성 상 해외투자에는 다양한 제약이 따른다. 또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해외 판매는 기존의 강대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다. 지난 10여 년 간 터키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현 시점에서 그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터키의 사례가 기존에 주로 강대국 내에서 추진되어 온 군사혁신 사례와 달리 중견국 군사혁신의 국제적 측면을 부각하는 사례가 되어줄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 문헌]

- "미, 터키에 'F-35' 판매 중단," Voice of America, 2019. 7. 17.
- 설인호, "군사혁신(RMA)의 전파와 미중 군사혁신 경쟁"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제50집, 3호, 2012. p. 144.
- 안영, "터키, 獨 설계 잠수함 도입해 '지중해 양속' 그리스 견제한다," 『조선일보』, 2021 7. 17.
- 유재광, "기रो에선 중견국: '능력-의지 연계모델'을 통해 본 터키 중견국 외교 부침(浮沈) 연구," 『국제정치논총』 60(1), 2020.
- 임국정, "'오스만 제국 부활' 노리는 터키... 해외 영향력 확대 본격화," 『세계일보』 2020. 2. 15.
- Abda, Cameron. "Why is Turkey fighting Syria's Kurds?" Foreign Policy (Oct.,17, 2019)
- Akar Hulusi. "Turkey's Military and Defense Policies," Insight Turkey 2020 22(3), pp. 9-15.
- Bakeer, Ali. Challenges Threaten the Rise of Turkey's Defense Industry, Middle East Institute, 2019.
- Bozkurt, Abdulla. "Secret plans show how Turkey armed, trained and equipped Syrian rebels," Nordic Research Monitoring Network Dec., 6 (2019)
- Cook, Steven A. "Erdogan is Weak. And Invincible." Foreign Policy (2018/March).
- Cook, Steven A. "Erdogan Plays Washington Like a Fiddle." Foreign Policy (2018/Sept.)
- Dal, Emel Parlar. "Conceptualizing and Testing the Emerging Regional Power of Turkey in the Shifting International Order." Third World Quarterly 37(8) (2016)
- Demir Ismail, "Transformation of the Turkish Defense Industry: The Story and Relations of the Great Rise," Insight Turkey 2020 22(3), pp. 17-40.
- Didic Ajdinand Hasan Kosebalabankosebalaban1. "Turkey's Rapprochement with Russia: Assertive Bandwagoning." International Spectator 54-3 (2019)
- Haugom, Lars. "Turkish Foreign Policy under Erdogan: A Change in International Orientation?" Comparative Strategy 38-3 (2014).
- Iddon, Paul. "The significance of Turkey's overseas military bases." Ahval<https://ahvalnews.com/turkish-military/significance-turkeys-overseas-military-bases> (검색일 2019. 12. 3).



Kardas, Saban. "Turkish–American Relations in the 2000s: Revisiting the Basic Parameters of Partnership." *Perception* 16–3 (Autumn 2011)

Önis, Ziya and Mustafa Kutlay. "The Dynamics of Emerging Middle Power Influence in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 the Paradoxical Case of Turke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1–2 (2016)

Ryan Gingeras, "Blue Homeland: The Heated Politics Behind Turkey's New Maritime Strategy,"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2020

Piccio, Lorenzo. "Post–Arab Spring, Turkey flexes its foreign aid muscle," *Davex* 17, Feb. (2014) <https://www.devex.com/news/post-arab-spring-turkey-flexes-its-foreign-aid-muscle-82871> (검색일: 2019. 12. 2)

Taspiner, Omer. "The End of the Turkish Model." *Survival* 56–2 (2014).

Vidino, Lorenzo. "Erdogan's Long Arm in Europe." *Foreign Policy* (2018/8).

Yesiltas Murat, "Deciphering Turkey's Assertive Military and Defense Strategy: Objectives, Pillars, and Implication," *Insight Turkey* 2020 22(3), pp. 89–114.

Yilmiz, Ihsan & Galib Bashirov. "The AKP after 15 Years: Emergence of Erdoganism in Turkey." *Third World Quarterly* 39–9 (2018).